

전남도, 360억 투입...소상공인 자생력 강화한다

이자 지원·폐업 재창업 돕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전통시장 장보기도우미 도입

전남도가 올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360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지원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최근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경영안정 기반 구축부터 위기 극복, 혁신 역량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체계 고도화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22개 세부 추진 과제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이자 부담 낮추고 자금 숨통 틔우고’... 경영안정 총력=전남도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대표 사업인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사업에는 55억원의 예산을 투입, 총 1000억원 규모의 융자금에

대해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를 최대 1.6% 수준까지 낮춰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는 복안이다.

또 산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지원(3억원)을 통해 업체당 평균 27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유도하고, 금융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 운영을 연 70회로 확대해 행정 편의성을 높인다. 채무 조정과 재무 상담을 제공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에도 6억 8000만원을 배정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한다.

◇폐업 위기를 재기 기회로... 사회안전망 확충=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연착륙’ 지원도 강화된다. 전남도는 ‘소상공인 재기지원 원스톱 지

원사업’에 1억 3000만원을 투입해 폐업 정리 컨설팅부터 최대 300만원의 폐업 비용 지원, 재창업 교육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납입료의 20%를 환급해주며, 폐업과 노령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액을 기존 월 2만원에서 3만원(연 최대 36만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불의의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스마트하게 변해야 산다”...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육성=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키우는 혁신 사업도 탄력을 받는다. 전남도는 6억원을 들여 스마트 기기 도입(최대 100만 원)과 라이브 커머스 방송 판매를 지원한다. 특히 ‘공공·상생배달앱(떡까비, 땡겨요)’ 운영 및 활성화에 8억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중개수수

료 부담을 1.5~2.0% 수준으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이밖에도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프랜차이즈화 지원’,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돕는 ‘디자인 개발 지원(6억원)’, 그리고 지역 방송을 통해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동네가게 함께 가게’ 프로젝트 등이 추진된다.

◇전통시장 활성화... ‘장보기 도우미’ 도입=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책도 풍성하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입되는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이 눈에 띈다. 2억 64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22개 시장에 도우미를 배치, 고령자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장보기를 돕고 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형마트 수준의 편의성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지역 내 소비 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1조 1291억 원 규모로 발행된다. 도는 사·군별 발행 할인 보전금으로 50억원을 지원해 지역 자

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 매출 증대를 꾀한다. 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144억원의 거액을 투입해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전남도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을 확대하고, 시·군 연합회에 전담 매니저를 배치하는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5.7억원)’ 사업을 통해 행정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도움을 제공한다. 상인 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워크숍과 전통시장 디지털 활성화를 사업도 병행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자부심”이라며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자생력을 갖춘 혁신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 안정부터 디지털 전환까지 전남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트럭 ‘다섬이’ 시동

D-200 앞두고 이동형 홍보 박차
부산·고양·순천 등 행사장 순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전국에 알릴 홍보 트럭(사진)이 시동을 걸었다.

3일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섬박람회 홍보관 ‘다섬이 트럭’이 섬박람회 개최 D-200일(17일)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행사장을 찾아가는다.

‘다섬이 트럭’은 세계 최초로 열리는 섬을 주제로 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의미와 비전을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이동형 홍보 플랫폼이다.

D-200일 여수를 시작으로 부산국제보트쇼(3월), 고양국제꽃박람회(4월), 순천만갈대축제(10월) 등 전국 주요 행사장을 찾아 다니며 박람회를 홍보하게 된다.

차량은 여수세계섬박람회 마스코트와 로고로 외부를 꾸미고 섬박람회 홍보영상을 송출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운영한다.

박람회조직위 관계자는 “다섬이 트럭으로 홍보 현장을 찾아다니며 상황에 따라 리플릿을 배포하거나 이벤트 등을 운영하면서 섬박람회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노후 방조제, 농림부 개보수 사업 대상지 선정

해남·영암·영광 등 13개

전남지역 13개 방조제에 대한 개보수 사업이 진행된다.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신규 착수 대상지’로 13개 지구(국가관리 3·지방관리 10)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노후 방조제 제방과 배수갑문 등을 보수·보강해 홍수, 태풍, 해안침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림부가 선정한 전국 25개 신규 착수 대상지 중 전남은 가장 많은 13곳(52%)이 선정됐다. 13개 지구는 국가관리방조제인 ▲해남 ▲영암

영산강1 ▲영광 백수 등 3개 지구와 영광·장흥·무안·고흥·신안 등 5개 군 10개 지방관리방조제로 나뉜다.

전남도는 설계단계부터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기상이변에 대응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선으로 농업 재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올해 신규 지방공무원 1822명 선발

전년비 310명 늘어...간호·보건·사회복지직 314명

전남도가 올해 신규 지방공무원 1822명을 선발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일 전년도(1512명)보다 310명이 증가한 ‘2026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연간 채용 계획에 따라 모두 5차례 진행되며 공개경쟁(2회)과 경력경쟁(4회), 연구·지도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으로 나눠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일정과 내용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 시험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두 1546명을 뽑는 공개경쟁시험(8~9급)은 6월 20일 필기시험을 치른다. 행정직렬 일반행정직류(417명) 선발 인원이 가장 많고 사회복지

(226명)·일반행정(장애인·157명) 등의 순으로 채용 인원이 많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월 27일)에 따라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구축을 전담할 간호·보건·사회복지직 공무원(314명)을 신규 채용한다.

연구사(12명)를 채용하는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3월 21일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전남도는 또 응시자 중심의 직관적 정보 제공과 응시율·합격선 등 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시험정보 누리집을 개편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설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전통시장·음식점 등 점검

설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23개 반을 투입하고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농산물·가공품 판매업소,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전남도는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기 방법의 적정성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원산지가 다

른 동일 품목을 혼합해 조리·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확인 영수증 등 증빙서류 비치·보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도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히 단속과 조치로 소비자가 안심하는 유통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